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2월 16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찬송가 9(신) 53(구)

*성시 교독 / 교독문 6번 (시편 10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예수가 거느리시니 / 찬송가 390(신) 444(구)

기도 / 박래석 집사

성경 봉독 / 시편 139편 1-18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감사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찬송가 488(신) 53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 늘 말 씀 요 약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3.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의 글 나는 충성된 청지기인가? 조은영 집사

**'엘리야의 하나님' 이라는 성가 곡이 있다. 반주부가 좀 독특하고 가사나 곡조가 절실한 감정을 갖게 하는 곡이다.
갈멜산에 번제물을 쌓아놓고,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는 것이 그 배경인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니 불로써 응답하시라고 부르짖는 대목은 정말 눈물이 날만큼 간절하다.**

**지인 중에 주일지킴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주일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라면서 토요일만 되면 온 집안일을 끝내 놓고 다음날 있을 교회의 일들에 집중한다.
야간 근무 때문에 늘 잠이 부족할텐데도 예배가 끝나도 먼저 교회문을 나서는 법이 없고, 자신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옆에서 보면 모든 일이 꼭 종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기뻐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 분을 만나면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나는 충성된 청지기인가? 내 삶의 제사는 어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위로의 말만 골라 듣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 것 같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는데 있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의도치는 않지만 슬그머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무수히 많은 것을 보면 -내 눈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도 자주 보인다-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선포되는 말씀이나 기도 속에 녹아 있는 축복들은 그냥 언어로 흘러가게 놔둘 수 없으니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겠다는 욕심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반응을 하기 원하며, 그럼으로써 나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내 평생에 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찬양드릴 크고 귀하신 이름이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올 2025년 한해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귀한 공동체의 교회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지는 '매일성경'(월-금)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4. 지난 주에 드린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다음 주일, 2월 23일까지 한규철 집사님(전도부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 주보에 귀한 글(전심전력의 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 이번 주 기도제목

신정호 미얀마 선교사님을 위해(신학교, 고아원, 원주민 전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두가 전심전력 하기 위해
제직 부서장(조창, 한규철, 박승화, 조은영) 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
교우를 위한 기도 / 한광기 장로님 내외분의 건강, 윤하영 자매의 쾌유, 최상천 장로님 내외분 안전 여행(2/17-27)

2월 예배위원				
안 내	조창		김정신	
기 도	김대희(2)	조은영(9)	박래석(16)	한정임(23)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수요 제자 양육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7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홈 페이지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길 축원합니다.

저희 생명샘 장로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말씀에 있음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